

역시 우즈...올 구글 최다 검색 PGA 선수



우즈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해 구글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선수 중 최다 검색 기록을 세웠다.

미국 골프위크가 26일(한국시간) 공개한 올 1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PGA투어 주요 선수의 구글 검색량 결과 우즈가 1위를 차지했다.

골프위크는 “우즈는 PGA투어 소속 선수들 중 가장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PGA투어의 전 선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구글 검색량을 자랑했다”고 전했다.

우즈는 PGA투어가 구글 검색량, 글로벌 미디어 노출, 소셜 미디어 언급 등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IP)에서도 1위에 올라 골프 황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우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검색량을 기록한 PGA선수에게 이름을 올렸다. 매킬로이는 PIP 순위에서도 우즈에 이어 2위였다. 3위는 스킵티 세플러(미국)가 차지했다. 하지만 세플러는 PIP 순위에서 6위에 그쳤다.

양형모 기자 hmyang@donga.com

‘LPGA 최다 88승’ 휘트워스 83세로 타계



휘트워스

“88승이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을 세우려 했던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우승을 원했을 뿐이다.”

또 한 명의 골프 전설이 타계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다승 기록의 금자탑을 쌓았던 케이트 휘트워스(미국)가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LPGA 투어는 26일(한국시간) “휘트워스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녀 세운 통산 88승은 남녀 통틀어 최다승 기록이다. 라이벌이었던 2위 마키 라이트(미국)보다 6승이나 앞선 기록이며, 타이거 우즈, 샘 스니드(이상 미국)가 세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다승(82승)보다 많다.

생전 휘트워스가 세운 다수의 기록들은 세계 골프사(史)의 첫 장에 기록될 만한 것들이었다. 1962년 캘리포니아 오픈에서 우승하며 신기록 대장정을 시작한 휘트워스는 1978년까지 17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22시즌 우승, 17년 연속 우승은 LPGA 투어 최장 우승 기록이다. 메이저대회 우승은 6번 달성했다.

우승 외에도 그는 많은 기록을 수립했다. 8차례 상금왕에 올라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시즌 평균타수 1위에 게 수여하는 베이트로피를 11차례나 품에 안았다. 1966년부터 시상한 ‘올해의 선수상’은 7차례 수상했다. 이 부문 1위는 8번 수상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다.

1975년 LPGA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1982년에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그의 마지막 우승은 1985년 유니타이드 버지니아 뱅크 클래식이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2년 가까이 이어진 9연패 설욕 기회

흔들리는 현대건설, 미소짓는 흥국생명

돌아온 김연경 앞세워 막강 전력 과시
부상에 연승 끊긴 현대건설 꺾을 찬스
29일 시즌 3번째 맞대결 총력전 예고



흥국생명이 현대건설 징크스를 끊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2022~2023시즌에도 V리그 여자부의 강자는 현대건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상 여파로 개막 이후 전승행진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대항마는 있다. 돌아온 ‘배구여제’ 김연경(34)을 앞세운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최근 흥국생명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5연승을 달리다 20일 GS칼텍스에 패했지만, 연패로 이어지진 않았다. 24일 만원관중(5800명)이 들어찬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승점 39(13승4패)를 쌓았다. 현대건설(15승1패·승점 42)보다 1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간격은 크지 않다. 29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질 ‘도드람 2022~2023 V리그’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제압한다면 1위 경쟁은 요동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앞선 2차례 맞대결(1라운드 1-3·2라운드 0-3)에서 현대건설에 모두 패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현대건설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 야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은 올 시즌 김연경의 복귀에 힘입어 선두 현대건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흥국생명으로서 부상 이탈자가 많은 현대건설과 29일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상대전적 9연패 탈출과 함께 선두 도약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다.

스민 베다르트, 미들블로커(센터) 양효진의 맹공에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3라운드 맞대결에선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24일 IBK기업은행전을 마친 뒤 김연경은 “1라운드에서 야스민과 양효진을 전혀 못 막았고, 2라운드에서도 야스민을 막지 못했다. 그래도 3라운드는 조금 다를 것이다. 현대건설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찬 흥국생명 감독 역시 “현대건설을 꼭 잡고 싶다. 선수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즌뿐이 아니라 흥국생명은 현

대건설을 오랫동안 버리고 있었다. 지난해 1월 8일 펼쳐진 2020~2021시즌 4라운드 3-0 승리 이후 2년 가까이 현대건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1~2022시즌 5전패를 포함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9연패 중이다.

흥국생명에는 절호의 기회다.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김연경과 아포짓 스파이커 엘레나가 견재한 가운데 미들블로커 이주아도 힘을 내고 있다. 세터 김다솔의 경기운영능력 또한 더욱 성숙해졌고, 미들블로커 김나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은일을 해내고 있다. 베테랑 리베로 김해란의 수비력은 여전히

힘잡을 데 없다.

현대건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흥국생명에는 호재다. 현대건설은 2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원정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세트스코어 2-3으로 져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양효진, 황연주 등 베테랑들의 활약이 빼어나지만, 야스민과 미들블로커 이다현이 각각 허리와 어깨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게 치명적이다. 야스민은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아 3주 넘게 결장할 전망이다. 이다현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흥국생명전에는 나설 수 없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원정길 푼 푼 뭉친 GS칼텍스...상위권 도약 고삐 죄다

마나면 원정 7연전 반환점 돌아
강소휘 복귀 후 연패 끊고 연승
앞으로 한 주 더 버티면 ‘홈으로’

GS칼텍스가 길고 긴 원정길의 반환점을 돌았다.

GS칼텍스는 11일 화성 IBK기업은행전부터 4라운드 첫 경기인 내내 1월 5일 인천 흥국생명전까지 7경기를 잇달아 원정으로 치른다. 3라운드에는 원정경기만 땀 뻘이다. 이동거리도 만만치 않다. 화성, 인천 등 경인지역을 돈 뒤 광주, 김천, 대전 등 비수도권 일직까지 뺄곡하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과 선수들이 체력관리로 각별

히 신경을 쓴 이유다.

GS칼텍스는 원정 7연전 초반 난항을 겪었다. 간판 공격수인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강소휘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8일 현대건설과 홈경기에 앞서 우측 어깨 회전근 부상으로 이탈한 여파가 그대로 이어졌다. GS칼텍스는 강소휘가 빠진 3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GS칼텍스는 원정 7연전을 잘 넘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일찍이 예상했다. 차 감독은 “시즌 전 일정을 꼭 보면서 ‘이쯤 되면 힘들어지겠다. 컨디션이 떨어지겠다’고 예상했다. 지금이 어려운 일정인 것은 맞다. 계속해서 원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감독은 또 “선수들한테 ‘힘들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은 없다. 결국 코트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힘든 스케줄인 것은 맞지만,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 개인적으로 2023년이 되기 전 잔여경기에서 얼마나 승점을 쌓느냐에 따라 올 시즌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다. 강소휘가 복귀한 뒤 거짓말처럼 연승이 시작됐다. 강소휘의 복귀전이었던 20일 인천 흥국생명전에서 플세트 끝에 연패를 끊은 뒤 23일 광주 페퍼저축은행전에선 첫아웃 승리로 연승을 달렸다. 앞으로 한 주 정도만 더 버티면 홈경기 루틴을 따를 수 있다. 체

력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강소휘는 “감독님께서 아무 말 없이 눈치 주지 않고 날 기다려주셨다. 나 역시 빨리 극복하려 했다. 동료들도 ‘괜찮다’며 많이 격려해줬다. 그래서 빨리 복귀할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 팀의 일정이 이동거리 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프로선수라면 극복해야 하는 요소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7승9패(승점 22)로 4위다. 상위권과 격차가 아주 크진 않다. 시즌 전에는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도 평가받았다. 강소휘는 “시즌 초부터 부상으로 힘들어한 선수가 많았다. 그러면서 팀워크가 잘 안 맞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제 톱니바퀴가 잘 맞는 느낌이다. 남은 세 라운드에선 플레오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경기결과

남자프로농구 <25일>

●2022-2023 SKT 에이닷컴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인삼공사	24	16	8	0.667	0	2패
2	LG	24	15	9	0.625	1	5승
2	현대모비스	24	15	9	0.625	1	2승
4	캐롯	24	13	11	0.542	3	1패
5	SK	26	14	12	0.538	3	1승
6	KCC	24	11	13	0.458	5	2승
7	DB	25	10	15	0.400	6.5	1패
7	가스공사	25	10	15	0.400	6.5	5패
9	삼성	26	10	16	0.385	7	3패
10	KT	24	9	15	0.375	7	2승

여자프로농구 <25일>

●신한은행 SOL 2022-2023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16	15	1	0.938	0	12승
2	삼성생명	16	11	5	0.688	4	2승
3	BNK 썬	16	10	6	0.625	5	1승
4	신한은행	17	8	9	0.471	7.5	1승
5	KB스타즈	17	4	13	0.235	11.5	2패
6	하나원큐	16	1	15	0.063	14	7패

프로배구 <26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승점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42	15	1	1479	1257	1패
2	흥국생명	39	13	4	1511	1321	1승
3	도로공사	24	8	7	1370	1361	1패
4	GS칼텍스	22	7	9	1339	1357	2승
5	인삼공사	21	7	9	1368	1429	2승
6	IBK기업은행	19	6	10	1372	1426	3패
7	페퍼저축은행	1	0	16	1128	1416	16패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승점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42	14	2	1397	1226	8승
2	현대캐피탈	33	11	5	1359	1289	1승
3	우리카드	24	9	7	1419	1368	1패
4	OK금융그룹	24	8	8	1417	1450	2패
5	한국전력	19	6	10	1424	1442	6패
6	삼성화재	14	4	13	1409	1538	2승
7	KB손해보험	12	4	11	1215	1327	2패

오늘의 토토 <27일>

●농구토도 스페셜N 130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27 (화) 10:00	시카볼스	vs	휴스토크	유나이티드센터
2	12.27 (화) 10:00	뉴올렐리	vs	인디페이	스무디캄센터
3	12.27 (화) 10:00	샌안스퍼	vs	유타재즈	AT&T센터

NBA <26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보스턴	24	10	1	밀워키	22	11	1	애틀랜타	17	16
2	브루클린	21	12	2	클리블랜드	22	12	2	마이애미	16	17
3	필라델피아	20	12	3	인디애나	17	16	3	워싱턴	13	21
4	뉴욕	18	16	4	사카고	14	18	3	올랜도	13	21
5	토론토	15	18	5	디트로이트	8	27	5	샬럿	9	24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덴버	21	11	1	피닉스	19	15	1	뉴올리언스	20	12
2	유타	19	16	1	LAC	19	15	1	멤피스	20	12
3	포틀랜드	17	16	3	세크라멘토	17	14	3	달라스	18	16
4	미네소타	16	17	4	골든스테이트	16	18	4	샌안토니오	10	22
5	오클라호마	14	19	5	LAL	13	20	5	휴스턴	9	23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엠바드(밀워키)	795 33.1	① 할라버튼(인디애나)	325 10.5	① 카멜레(애틀랜타)	322 11.9
② 아데토쿰보(밀워키)	874 31.2	② 영(애틀랜타)	298 9.9	② 아데토쿰보(밀워키)	313 11.2
③ 데이팅(보스턴)	988 30.9	③ 갈랜드(클리블랜드)	219 7.8	③ 부세비제(사카고)	334 10.4
④ 듀란트(브루클린)	958 29.9	④ 할라데이(밀워키)	194 7.5	④ 알렌(클리블랜드)	272 10.1
⑤ 미첼(클리블랜드)	867 28.9	⑤ 스마트(보스턴)	221 7.4	⑤ 포터스(밀워키)	330 10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돈치치(달라스)	1016 32.8	① 요키치(덴버)	274 9.4	① 사보니스(세크라멘토)	385 12.4
② 갈라시(오클라호마)	948 31.6	② 돈치치(달라스)	270 8.7	② 고베(마이네스타)	343 12.3
③ 커리(골든스테이트)	779 30	③ 모란트(멤피스)	213 7.9	③ 데이비스(LAL)	302 12.1
④ 제임스(LAL)	696 27.8	④ 웨스트브룩(LAL)	225 7.5	④ 요키치(덴버)	320 11
⑤ 데이비스(LAL)	685 27.4	⑤ 커리(골든스테이트)	177 6.8	⑤ 주버츠(LAC)	344 10.8

●경기결과

보스턴	139-118	밀워키	델러스	124-115	LAL
골든스테이트	123-109	멤피스	필라델피아	119-112	뉴욕
덴버	(연장)	피닉스			

경기예고

프로농구 <27일>

●2022-2023 SKT 에이닷컴 KBL

인삼공사 <안양실내>	캐롯	KT	<수원KT>	현대모비스
오후7시, SPOTV / SPOTV ON		오후7시, SPOTV2 / SPOTV ON2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	<김천실내>	GS칼텍스
오후7시, SBS SPORTS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한국전력
오후7시, KBS N SPORTS		

오늘의 경기

배드민턴 ● 국가대표 선발전 (9시30분·당진체육관)